

February 2014

1. NIA News

- 국가정보화백서 발간
- NIA 10대 중점과제 발표
- 공공 데이터 품질개선 성과공유대회 개최

2. 원장 동정

- NIA 2014시무식 개최
-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 공식 출범식
- 광장시장 자매결연 및 사랑의 PC 기증식 참석

3. ICT 보고서

- 국가정보화백서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4. ICT 인사이트

- IT 활용 수기 대상작 김재권 '영화 감독의 꿈'

5. Play NIA

- 빅데이터기획부, 정보자원관리부 홍보 영상
- 스마트폰 중독 예방 공익 광고

6. 포토앨범

- 27주년 창립기념식

7. 2월 NIA 행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 통 (通)

for more information mail to : prd@nia.or.kr (김근혜 연구원)

Tel. 02-2131-0241 Fax. 02-2131-0109



공공 데이터 품질개선 성과공유대회 개최

우리 원은 22일 공공데이터 사업 추진 성과 공유를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개선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국정 과제 3.0의 핵심인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을 위해 28개 기관과 35개 공공DB를 대상으로 품질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원은 지원 사업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진단을 수행하여 개선 방안과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과 관리체계도 마련했습니다. 품질진단 결과 즉각적으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되는 DB는 데이터 정제와 표준화,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작업도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 데이터를 제공·활용하는 데 이바지하는 NIA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2013년 국가정보화백서 발간

우리 원은 공공·민간 부문을 아울러 지난 1년간의 국가정보화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2013년 국가정보화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백서는 국가정보화의 정책 성과와 중요성을 정부·학계·국민에게 널리 알려 사료(史料)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발간된 국가정보화백서는 올해로 발간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백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보화 역할과 과제, ② ICT의 창의적인 활용을 통한 사회 각 분야의 효율성 제고, ③ 초연결 사회를 대비한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 ④ 빅데이터 등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활용 정착, ⑤ ICT 신기술 기반의 산업 간 융합을 통한 新비즈니스 창출 등입니다.

홈페이지(www.nia.or.kr)를 통해 국가정보화백서 전문과 요약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NIA 10대 중점과제 발표

1월 2일(목)에 열린 우리 원 2014년 시무식에서 정보화로 창조경제와 정부 3.0 실현을 위해 NIA가 추진해 가야할 2014년 10대 중점 과제를 발표 하였습니다.

10대 과제는 첫째, NIA 위상 및 역할 측면에서 C-P-N-D 선순환 ICT 생태계 전반 총괄 조정 강화 둘째, 창조경제, 정부 3.0 추진 지원 셋째, 초연결사회 가속화, 공공기관 정상화, 차질 없는 지방이전 등 대내외 환경변화와 고객요구에 대한 대응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 새로운 10대 과제 발표를 통해 국가 정보화를 더욱 힘차게 이끌 NIA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2014 NIA 10대 중점과제

- 국가정보화(ICT) Think Tank 강화
- 협업기반의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 정부 3.0구현을 위한 스마트 전자정부서비스 확충
- 초연결 사회 인프라 구축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통한 정보 3.0 실현
- 빅데이터 기반 국가미래전략 수립
- 건강하고 안전한 창조사회 기반 조성
- '디지털 에이징'으로 고령층 행복 실현
- 국가정보화 글로벌 위상 및 협력 강화



민관 합동 창조 경제 추진단 공식 출범

장광수 원장은 1월 13일(월)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열린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창조경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부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추진단은 민간의 창의성과 정부의 기획력을 결합하여 시장과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파급효과가 큰 창조경제 관련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이행할 예정입니다. 신산업·신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창조경제를 사회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장시장 자매결연 체결식 및 사랑의 PC 장애인 복지관 기증식 참석

장광수 원장은 지역 전통시장인 광장시장과 1월 27일(월) 자매 결연을 맺고 시장상인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원은 침체위기에 있는 전통시장 기(氣)를 살리기 위해 각종 행사 시 필요물품, 식자재 및 소모품 구매시 광장시장 활용을 권장하고 행사 포상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장광수 원장은 “지역경제 발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뜻 깊은 자리로서 행사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사회의 인적·물적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사랑의 PC 5대와 쌀 100kg를 기증했습니다.

NIA 2014 시무식

장광수 원장은 1월 2일(목) 우리 원 대강당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년 시무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시무식에서는 직원들의 신년 맞이 인터뷰 영상 시청과 ‘14년 소망을 담은 타임캡슐 봉인식, 생일자에 대한 축하와 선물 증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창조경제와 정부 3.0 실현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해갈 2014년 10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장광수 원장은 시무식 인사말을 통해 ‘13년 노고를 치하하며, ‘14년에도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을 통해 초연결 사회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창조경제와 정부 3.0 실현이라는 역사의 문을 열자”고 당부하였습니다.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우수한 ICT 인프라에 비해 제조·판매·교육 등 주요 부문에서의 과학·ICT 활용이 저조한 실정을 극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는 농업, 문화, 환경, 식품 등 각 분야별로 해당 산업에 활력과 경쟁력을 더 하고, 국민 편익 증진 및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축수산물, 문화관광, 보건의료, 주력·전통 산업, 교육학습, 소상공업창업, 재난안전 SOC를 7대 분야로 선정하여 과학·ICT 확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추진이 시급하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15개 과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미래창조과학부 내의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한 과제 특성별 맞춤형 지원(R&D, 시범사업, 기술 확산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출처> 『2013년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화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비전

과학·ICT의 접목·확산을 통한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 실현

목표

- 국가사회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력 제고
- 범부처 협력 활성화 및 국민 편익 증진
- 상생 기반의 튼튼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7대 분야

농축수산물 (A, F)

소상공업창업 (B)

문화관광 (C, T)

주력 전통산업 등 (E, M)

보건의료 (H, W)

교육학습 (L)

재난안전 SOC (S, I)

추진 방향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생기 있는 지역경제

중소기업 자영업 분야 지속가능 산업생태계 구축

문화관광산업의 신수종산업화

과학 ICT 기반 제조업 및 에너지산업 혁신

생애주기별 개인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평생학습사회 구현으로 창의인재 양성

21C형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 재난재해 안전

인프라·기반 조성

법제도 개선

*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창조경제실현계획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2013. 6.



김재권 '영화 감독의 꿈' (IT 체험수기 공모전 대상 작)

작년 무더운 여름날, 금정도서관에서 단편 영화 제작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모 대학 평생교육원 시절, 전국 동영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으로 상금 50만원을 받아 우리 교육생들이 회식을 하면서 즐거워하였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앞장서서 교육생들을 이끌며 단편영화 한편을 꼭 완성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여름 한 철 약 3개월 동안 강의와 촬영 편집을 하는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영상 한 장면을 만드는데 촬영은 10컷 이상을 찍어서 그 중에 좋은 것을 고르고 편집하여 한 장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 무더운 날씨에 영화감독으로서 연출을 하고 또 집에 와서 편집을 한다는 것이 보람차고 즐거웠습니다. 그리하여 교육생 중에서는 저 혼자만 편집을 완성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6명의 교육생이 같이 하였으나 마지막에는 7명만이 남았습니다. 대역부터 촬영까지 우리 교육생들끼리 하니 모두 처음 겪어 보고 날씨도 더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 정말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경비도 그 때 그 때 서로가 스스로 부담하면서 그야말로 단결된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촬영 장소가 일곱 곳 정도가 되었으나 고향에서 칠순이 넘도록 살았으니 장소섭외는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휠체어 장애인이라 촬영 장소를 따라 다닐 수가 없어서 보조강사와 제가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촬영과 편집을 할 수가 있었기에,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정열을 쏟아 부었습니다. 날씨도 덥고 정말 많은 애로도 있었지만 마침내 우리는 9분 30초짜리 단편영화 '김노인' 한편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도서관 영상실에서 모든 교육생과 강사님, 도서관 관장님과 관계 직원,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교육 담당 관계자 등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단편영화 "김노인"의 시사회를 하였습니다. 수고 하신 분들을 소개하면서 상영을 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감독하고 편집한 영화인가! 정말 컴퓨터를 배운지 십 수 년 만에 이렇게 큰 보람이 있을 줄이야!'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정말 기쁘면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뒤풀이에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촬영 과정 등을 이야기 하면서 3개월간의 긴 단편영화 제작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강사님과 보조강사, 캠퍼터 등의 지원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하다 제2회 부산실버영상제 영상 공모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리 작품 김노인을 출품하기로 결심하고 선생님과 의논을 하였는데 주인공 김노인 역할을 한 분이 출품을 반대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분은 80세에 가까운 노인인데 출품을 하면 '가족들이 혹시나 영화를 볼까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어두운 역할이라 반대를 하는데 저는 식사 대접을 하고 술을 한잔 나누면서 잘 설득 하여 마침내 출품 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부산실버영상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든 준비를 완료 하고 마감 하루 전에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출품은 하여도 오직 경험 삼아서 하여 보는 것이지 욕심은 없었습니다. 혹시 상장이라도 하나 받을 수가 있을는지 꿈같은 생각은 하여 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한통의 전화가 와서 김재권 감독이냐고 물어서 “김재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첫 말에 축하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물어 보니 단편영화 김노인이 부산실버영상제 출품작 207편중에서 대상 다음인 최우수상이라며 다시 축하한다고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멍하니 가만히 있었습니다. 기쁘지 않느냐고 묻길래 정신이 없어 집에 가서 전화한다 하고 집으로 오는데 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버 영상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우리들의 작품 김노인이 분명히 최우수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우리 작품 김노인을 아주 높게 평가하였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집사람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낮에는 촬영을, 밤에는 집에서 컴퓨터를 열어 놓고 늦게 까지 편집하고 마음을 쓰는 것을 누구보다 집사람이 잘 알고 있었기에, 집사람과 함께 울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기뻐하였습니다. 선생님과 제작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 뒤, 주최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집사람과 우리 제작팀 모두 시상식에 참석하여 부산시장님 시위위원장님 그리고 각 구청 노인 복지관 관계자 등 약 2000석이 되는 시민회관에서 영광의 시상식을 하였습니다. 저는 ‘실버미디어누리단’의 대표로 상금 100만원과 상패를 받았습니다. 2000여명의 관람객이 보는데서 꽃다발을 두 개나 받으니 이게 무슨 영광인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방송 3사의 카메라와 언론사 등이 취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나 큰 행사에서 영화를 만들어 수상을 하였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금정구청 소식지에도 실려 단편영화 김노인의 감독으로 제 이름이 실렸으니 이제 저는 영화감독이 된 기분입니다. 2012년 연말경에는 부산독립영화제, 부산시민영화제, 김해문화의 전당 등에서 연락이 와 김재권 감독님이라고 부르면서 영상제에 출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때는 ‘이제 정말 내가 영화감독이 되었구나! 하는 착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몸도 좋지 않은 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영광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다른 장애인에게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면 된다! 는 신념을 다시 확인 할 수가 있는 좋은 확신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실버들의 취미가 단순히 컴퓨터를 하는 것에서 동영상과 영상 제작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실버미디어누리단 이라는 단체명을 “금정영상동호회”로 바꾸어서 2013년 오늘까지 매월 모이고 있습니다.

제 나이 칠십대 초반 컴퓨터를 처음 배운지 13년. 이제 나를 영화감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확실한 실력을 갖춘 감독이 되고 싶어서 많은 동료들과 오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정도서관에서 일주일에 2시간씩 우리 동호회 회원들끼리 동영상 편집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영화에 대한 지식을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취미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즐거운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좋아 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솟구칩니다.

내년 실버영상제에서는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화감독의 꿈이 꼭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여야겠습니다.”

부산실버영상제 최우수상수상작 '김노인' - 김재권 감독
영상 링크 : <http://youtu.be/NWrCSv4JkcM>



빅데이터 분석 활용 센터

우수한 ICT 인프라와 인력을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 활용 센터가 국가 정보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첫째, 중소기업이 빅데이터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둘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합니다.

셋째, 빅데이터 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커리큘럼과 실습환경을 마련합니다.

넷째, NIA의 축적된 경험과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활용센터가 과학적 비즈니스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영상 링크 : <http://youtu.be/1WNhG9-bfMA>



지식 DB 사업의 현황

지식 DB 사업은 국가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식 정보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동북아 역사적 사료 등을 다국어로 DB화하여 외교 분쟁 시 활용합니다. 또한,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유동인구 DB나 시장 데이터를 제공하여 신시장 창출을 이끌어냅니다.

현재까지 약 9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와 100% 중소기업의 참여, 147종 6억건 DB를 구축한 국가 지식 DB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링크 : <http://youtu.be/C-8VWGvWtds>



스마트폰 중독 예방 공익 광고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요즘 우리의 모습을 잘 꼬집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NIA의 캠페인입니다.

주말 저녁, 가족과 함께 모여 서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는 잠시 넣어두는 것이 어떨까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인터넷중독상담센터와 올바른 미디어 이용 교육 등을 통해 건강한 스마트 기기 이용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영상 링크 : <http://youtu.be/y9ehFIXaLUw>

27주년 창립기념식

우리 원의 창립 27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1월 29일 원 지하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창립 기념식에는 반부패 청렴 선포식을 비롯하여 1월 우수 부서와 우수 멘토-멘티 시상, 청렴부서 시상 등 총 7개 부문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솔리데오시스템, 힘스인터내셔널, 대영유비텍, 한국문화정보센터 등 대외 기관도 참석하여 27주년 창립을 축하하였습니다. 다 함께 우리 원의 27년 역사와 성과를 되돌아보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February 2014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 국가정보화 창조전략세미나 - 스마트카 산업의 미래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전남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개소식 (여수시 IT교육센터)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